

기형우 발생지역의 *Neospora caninum*에 대한 혈청학적 및 면역조직화학적 관찰

손성봉, 정원일, 정규식, 이차수

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병리학교실

원충성 질병인 *Neospora caninum*은 소와 개를 비롯한 여러 동물에서 유·사산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, 최근국내에서도 젖소농가를 중심으로 발생보고가 있으나, 한우에 대해서는 거의 역학적조사가 되어있지 않은 바, 본 연구에서는 도축되는 한우, 유·사산 및 기형송아지를 중심으로 간접형광항체검사법(IFAT)을 이용한 혈청학적 조사 및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에 의한 *Neospora caninum*의 동정을 실시하였다.

도축우의 혈청학적 검사에서는 경북 중부지역(경산, 청도, 영천)이 8.8%(21/240), 경북 동해안지역(울진, 영덕, 포항)이 11.0%(11/100), 경남(거창, 함천)이 5.9%(5/85), 경기도(남양주)가 16.7%(8/48)로 나타났다. 유·사산 및 기형발생농가의 송아지 총 54두 중 4두가 양성반응이었고, 태아와 모우에서 양성인 경우, 모우에서만 양성인 경우 그리고 태아만 양성인 경우가 각각 2개 농가였다.

유·사산태아 및 기형송아지 54두 중 일차적으로 *Neospora caninum*에 혈청학적으로 양성반응을 보인 4농가의 가검물(기형송아지 3두와 사산된 송아지 1두)을 병리조직학적으로 검사한 바, 사산태아 1두에서만 네오스포라양 cyst가 뇌, 간, 신장 및 폐에서 관찰되었다. 그리고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도 사산된 본 태아의 뇌 및 간장에서 *Neospora caninum*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이상의 결과로 보아 젖소에서처럼 한우에서도 *Neospora caninum*이 이상산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기형송아지의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.